Press release

**ITU전권회의 드디어 개막, 전 세계 ICT 부문 리더들 한자리에**

**박근혜 대통령 개막식 참가해 하마둔 뚜레 ITU 사무총장과 만나. 3주간의 회의 기간 동안 3천명 이상의 참가자들 ICT산업의 미래 집중 토의**

**부산, 2014년 10월 20일**– 제 19회ITU 전권회의가 드디어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문을 열었다. 앞으로 3주간의 회의 기간동안 3천명에 달하는 각국 대표단, 600여개의 국내외 언론이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개최도시 부산을 찾는다.

미래창조과학부(MSIP)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부산 벡스코에서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이어진다.

대한민국은 ITU의 ICT 개발지수에서 지난 4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한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이다.

참가 대표단이 각국의 정부로부터 국제조약체결에 관한 전권을 위임 받았다 하여 ITU전권회의로 불리는 이 행사는 전 세계 ICT분야 정책입안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최대 국제회의다.

PP-14라고도 불리는 올해 회의에는 175개 ITU 회원국, 3개 부문(ITU-R/T/D) 국장, 이사국, 옵저버 기관, 장관 104명, 차관 35명, 대사 67명이 참가한다.

**사진:**[www.itu.int/pp14/photos](http://www.itu.int/pp14/photos)

**동영상보기:**[www.itu.int/pp14/videos](http://www.itu.int/pp14/videos)

**소셜:**[www.int/int/pp14/social](http://www.int/int/pp14/social)

**웹캐스트:**[www.itu.int/pp14/webcast](http://www.itu.int/pp14/webcast)

**일일어젠다/일정:**[www.itu.int/en/plenipotentiary/2014/Pages/schedule.aspx](http://www.itu.int/en/plenipotentiary/2014/Pages/schedule.aspx)

**Read backgrounders on conference topics:**<http://www.itu.int/en/plenipotentiary/2014/newsroom/Pages/backgrounders.aspx>

**PP-14 앱:**<http://newslog.itu.int/archives/652>

추가정보[**PP-14 Newsroom**](http://www.itu.int/en/plenipotentiary/2014/newsroom/Pages/default.aspx)

언론사에제공되는HD 동영상[www.itu.int/en/videos/Pages/default.aspx](http://www.itu.int/en/videos/Pages/default.aspx)

4년마다 열리는 전권회의는 ITU의 미래 전략을 결정하고, 회원국들의 변화하는 수요에 따라 정책과 권고사항을 개발하고 결정한다.

올해 주요 의제로는 정보격차 해소, 광대역 보급, ICT 국제협력 강화, 신규 회원국 유치,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 참가 확대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올해 행사의 특징으로는 ‘Connect 2020’이라 명명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하에서 글로벌 ICT 개발 목표 수립에 대한 최초의 국제합의를 도출한다는 것이다.

개막식 날 오후 열릴 본회의 진행을 맡은 민원기 ITU 전권회의 의장 지명자는 지난 25년간 성공적으로 한국의 ICT개발 전략을 수립해 왔다.민의장은 오후 본회의시 공식의장으로 추대된다.

하마둔 뚜레 ITU 사무총장은 오늘 아침 개막식에서 2007년 취임 이후 전 세계 휴대폰 가입자수가 27억명에서 69억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기간 동안 인터넷 사용인구는 12억명에서 29억명으로 뛰어 올랐다.

뚜레 사무총장은 “단순한 인터넷 보급률 이라는 수치가 아니라인류를 위한 진정한 발전을 이룬 것이다” 라며 대표단을 향해아직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수십억 인구에게 디지털 혜택을 가져다 줄 담대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부산과 같은 최첨단 인터넷 환경을 자랑하는 도시에서는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전화,스마트폰,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가 사치가 아니라 생명선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쉽다. 연결성은 보건,교육,취업,은행,향상된 거버넌스를 가져온다.앞으로 3주 동안 참가자 모두가 더 밝고 지속가능한 ICT의 미래를 위해 꿈꾸고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막연설에서, “무선통신과 ICT는 인터넷과 무선통신의 가파른 성장을 촉진했다.이제 우리는 초연결 디지털 혁명의 변곡점에 와 있다.이 혁명은 더 나은 연결성,더 스마트하고 더 빠른 연결로 규정된다”고 말했다.박대통령은 “ITU는 무선통신과 ICT분야 최고의 정책결정기구라는 점에서 이 행사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을 환영하며, ITU는 무선통신 표준기술 개발,국제무선주파수 스펙트럼 관리,위성궤도 관리를 통해 193개 회원국의 경제발전과 삶의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출신의 반기문UN사무총장은 영상메세지를 보내와 “휴대폰은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사람들을 연결시켰다.광대역망은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켰고특히 여성,청소년,장애인들의 정보격차 해소에 힘을 보탰다. ICT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도구이다. 우리는 새로운 개발어젠다를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지금 계속해서 기술의 힘을 활용해 더욱 접근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서병수 부산 시장 같은 주요 인사가 자리를 빛냈다.

최양희 장관은 “우리는 지금 업종간 활동과 연결이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한 초연결 세상으로 진입하고 있다.이러한 세상에서는 ICT의 발전은 더 이상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하지만 여전히 광대역망이나 ICT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PP-14가 기술발전을 논의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인프라 확대, 건전한 ICT 활용을 위한 환경 창출이라는 문제를 공동으로 고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대표단들에게 “ITU는 부산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말했다.부산은 10년 전 2004 ITU 텔레콤 컨퍼런스에서개최지로 결정되었다.

서시장은 오늘 개막식에 하루 앞서 벡스코공원에서 열린 기념식수행사에 참가하여 한국 ICT산업의 영원한 발전과 부산이 국제 ICT 메카로 부상하기를 기원했다.서병수 부산시장은 “오늘날ICT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산업에서 교육, 가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정보와 통신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세계는 지금 모든 사람,사물,데이터가 서로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는 변화를 맞이했다.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러한 기술의 혜택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ITU전권회의가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권회의 개막식은 한국 국립무용단의 전통무용 공연으로 막을 내렸다.

의제와 선거

PP-14 주요 의제 중 하나는 2016-2020 ITU 전략계획 수립 및 목표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할 재정계획 확정이다.

23(목)일에는 사무총장, 사무차장 ITU-T,R,D 총국장, 고위선출직, 자문위원(RRB), 이사국 등 65개의 주요직책에 대한 선거가 진행된다.

국제 통신분야에서 30년 이상 활동해 온 홀린 쟈오 현 사무차장은 차기 사무총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사무차장을 놓고 현재 5명이 출사표를 던졌고차기 ITU표준화총국장에는 세명이 경합 중이다. ITU-R과ITU-D 총국장은 후보등록자가 없는 상화이라 연임이 예상된다.

무선통신규제위원회 12석에는 20명이 입후보했으며, 48개 ITU의장국에 60개 국가가 신청했다. ITU의장국은 4년마다 열리는 매 전권회의 사이 기간 동안 ITU의 운영을 감시한다.

선거는 10월 23일 진행된다.

후보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https://itunews.itu.int/en/5237-Electing-ITU-top-executives.note.aspx>를 보면 된다.

특별행사

PP-14 부대행사로 5G 포럼, 장애인을 위한 ICT 접근성 향상 기기 전시회, e-헬쓰 전시회, 클라우드 엑스포 코리아, 헬스-IT 융합전시회 등이 개최된다.

이 외에도 올해는 ITU가 주관하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ICT분야 성평등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GEM-TECH상, 정부와 산업계 인사가 모이는Connect 2020,ITU 150주년기념식, 청년 ICT리더 포럼 등이 열린다.

ITU부대행사는 28일 오전 9시30분 GEM-TECH 시상식과 함께 시작된다.총 7개의 프로젝트와 롤모델이 수상자로 정해졌고 특별 글로벌 성과상이 5개 부문에서 시상된다.[이곳](http://www.itu.int/en/action/women/gem/Pages/finalists.aspx)을클릭하면 수상자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시상식이 끝나면 1시부터 2시까지는 “성과 ICT: 성평등,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주제로 고위급 토론이 펼쳐진다.참가가 확정된 면면을 보면 오모볼라 존슨 나이지리아 통신부 장관,엔기다 게타츄 유네스코 사무차장, 주 제네바 유엔 미 상설대표부 파멜라 하마토 대사를 비롯 민간 및 시민사회 분야 성평등 운동가들이 포함되어 있다.성평등을 주제로 하루 동안 진행되는 이 부대행사는 부산의 랜드마크엔 APEC 누리마루 하우스에서 열리는 GEM-TECM 갈라 디너쇼로 그 화려한 막을 내린다.

다음 날은 ITU Connect 2020 라운드테이블이 열려 고위급 패널들이 참가한 가운데 ITU 전략계획 – 성장, 포용, 지속가능성, 혁신, 감시와 같은 주요 주제들을 논의한다:

**10월 29일, 13:00-14:00** – 또 다른 15억 인구를 연결할 기술은?

**10월 30일, 13:00-14:00** – 완전한 디지털 포용의 달성: 2020년까지 가능할 것인가?

**10월 31일, 13:00-14:00** –개발의 장기적 혜택 보장: 성장의 지속가능한 관리법

**11월 3일, 13:00–14:00** – ICT가 만든 시장의 새로운 혁신 과제 해결

**11월 4일, 13:00–14:00** –글로벌 ICT 어젠다를 위한 활발한 감시 프로그램 구축

1865년 파리에서 탄생한 ITU의 150주년 기념식을 맞아 PP-14에서는‘ITU150’이라는 공식 캠페인을 런칭한다. 여기에서는 1월부터 ITU 기념일을 축하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ITU 글로벌 멤버십이 계획 중인 국가별 축하행사 프로그램 프리뷰가 마련된다.

마지막으로, ITU의 청년 ICT 정책리더(YIPL)는‘리더와의 만남’이라는격식 없이 개최되는 세션을 통해 미래 ICT 전문가들이 정책을 결정할 때 어떤 기술이 요구되는지 배우는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PP-14의 모든 참가국은 대표단에 35세 이하의 젋은 대표를 두명 동반할 수 있다.부산시 역시 최빈국의 참가를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해 최빈국 대표단 35명을 후원한다.

모든 부대행사는 인터넷 생중계 되며 시청을 위해서는[이곳을](http://www.itu.int/en/plenipotentiary/2014/Pages/webcast-se.aspx)클릭하면된다.

**최신 소식은@ITU와 해시태그#Plenipot14를 입력하면 된다.**[**www.itu.int/pp14/social to access all PP-14**](http://www.itu.int/pp14/social%20to%20access%20all%20PP-14)**소셜 미디어 채널.**

이미지 다운로드[www.itu.int/pp14/photos](http://www.itu.int/pp14/photos).

컨퍼런스 자료[www.itu.int/pp14/video](http://www.itu.int/pp14/video).

PP-14 가상 중계실 HD 동영상 다운로드: <http://www.itu.int/en/videos/Pages/default.aspx>.

인터넷 방송[www.itu.int/pp14/webcast](http://www.itu.int/pp14/webcast).

다양한 배경 자료[PP-14 Newsroom](http://www.itu.int/en/plenipotentiary/2014/newsroom/Pages/default.aspx.).

PP-14격주 잡지 특별호, [here](https://itunews.itu.int/en/).

이전 ITU 자료[PP-10 Newsroom](http://www.itu.int/plenipotentiary/2010/newsroom).

한국 담당자 연락처:

***미디어 허가:***

**Soraya ABINO QUINTANA**  
E-mail: [pressreg@itu.int](mailto:pressreg@itu.int)  
Tel: +82 10 6884 9112

***기타 언론 문의:***

**Sarah PARKES**

Chief, Media Relations and Public Information, ITU

E-mail: [sarah.parkes@itu.int](mailto:sarah.parkes@itu.int)  
Tel: +82 10 6884 9085

**Paul CONNEALLY**  
Head, ITU Corporate Communications

E-mail: [paul.conneally@itu.int](mailto:paul.conneally@itu.int)

Tel: +82 10 6884 9119

**한국 기자 담당**

**김하영**

Korean Media Liaison, MSIP

+82 10 7810 7393

*Facebook:*[www.itu.int/facebook](http://www.itu.int/facebook)

*Twitter:*[www.itu.int/twitter](http://www.itu.int/twitter)hashtag: #**Plenipot14**

**ITU란**

2014 ITU 전권회의(PP-14)는 UN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체다. 150년간 ITU는 라디오 주파수의 세계 공유, 위성궤도 할당 국제 협력, 개도국 통신 인프라 향상, 다양한 통신시스템 간의 상호 연결성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광대역 네트워크, 차세대 무선 기술, 우주 및 해상 항법, 무선 천문학, 위성기반 기후, 고정-휴대폰 통합, 방송기술에 이르기까지 ITU는 더 나은 세계를 만든다는 목표를 향해 정진하고 있다.